

트랜스포터만 늘렸다면...구멍 안뚫고도 가능했다

진흙에 막혀 세월호 배수 실패...선체 무게 못 줄여 선체 훼손 논란 속 육상 거치 1~2일 늦어질 듯

세월호 바닥에 19개의 구멍을 뚫었지만 선체 무게를 줄이는 데에는 실패했다. 선체 내 펌이 굳어 있어 물빠짐이 이뤄지지 않아서다. 이대로 시간을 흘려보내다가는 육상 거치의 적기인 6일을 넘길 수밖에 없어 해양수산부는 모듈 트랜스포터 24개를 추가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갑작스런 방식 변경으로 세월호의 육상 거치는 계획보다 1~2일 가량 늦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유가족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천공을 강행했던 해수부가 갑자기 모듈 트랜스포터 추가 도입으로 방향을 틀면서 일부러 세월호 훼손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장준 세월호선체조사위원장은 3일 오후 브리핑을 열어 "천공을 통한 배수가 예상대로 진척을 거두지 못함에 따라 상하이셀비지 등과 협의해 모듈 트랜스포터 수를 24개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월호의 현재 무게는 1만3460t으로 추정되며, 모듈 트랜스포터가 작업 설계상 1만3000t까지 감당할 수 있어 안전하게 선체를 옮기려면 460t 이상 줄여야 했다.

선체 무게를 줄이기 위해 지름 7cm의 구멍 19개를 뚫었으나 대부분 진흙으로 막혀 있어 배수가 안 되는 상황이다.

세월호는 선체 무게와 화물, 해수, 펌 등을 모두 합쳐 1만4662t에 달한다. 반잠수식 선박에서 자연 배수 방식으로 해수 약 1200t이 배출돼 현재 세월호의 총 무게는 약 1만3460t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모듈 트랜스포터'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는 1만 3000t이다. 아직도 460t이 초과된 상태다.

이 때문에 해수부는 D데크에 갇혀 있는 바닷물을 빼내기로 했다. 인양업체인 상하이셀비지는 D데크에 1400t의 해수와 펌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중 600t 이상을 제거한다는 계획이었다.

선체조사위 관계자는 D데크에 구멍을 뚫은 이유에 대해 "D데크가 손상 없이 잘 보존돼 구멍을 뚫으면 해수가 잘 빠질 것으로 봤다"며 "다른 화물칸인 C데크는 부분적으로 손상돼 자연적으로 구멍이 나 이미 물이 다 빠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멍을 뚫었지만 바닷물은 나오지 않았다. 진흙에 막혀 선체 무게를 줄일 수 없게 된 것이다.

해수부는 결국 모듈 트랜스포터가 24대 더 작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상하이셀비지는 당초 456대의 모듈 트랜스포터를 76대씩 6줄로 만들어 세월호를 옮길 계획이었다. 그러나 각 줄에 4대씩 모듈 트랜스포터를 더 달아 한 줄에 80대씩 총 480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협의 결과 모듈 트랜스포터가 24대 더 작업에 투입되면 세월호를 실어 나를 수 있고, 추가 기기는 2~3일 내에 목포 신항으로 조달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위원장은 "상하이셀비지는 비용 문제 때문에 모듈 트랜스포터 수를 낮춰 잡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세월호를 반잠수선에 싣고 있는 동안 하루에 소모되는 비용이 3억원이라는 점에서 소조기를 넘기며 45억원을 허비하기보단 트랜스포터를 추가 조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해수부가 일부러 소용량 모듈 트랜스포터를 동원하고서 이를 빌미로 세월호 선체에 구멍을 뚫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해수부가 일부러 속인 사실이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당연히 우리(선체조사위)의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모듈 트랜스포터 추가 도입이 결정되면서 선체 훼손 논란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목포=김현영기자 young@



3일 목포 신항만에서 작업자들이 세월호의 육상 거치 때 사용할 모듈 트랜스포터를 점검하고 있다. 천공으로 물을 빼내 세월호의 무게를 줄이려했지만 실패하자 해수부는 모듈 트랜스포터 24대를 추가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제공>

침몰지점 해저수색 내일부터 본격화

세월호 침몰지점에 대한 해저수색이 사실상 5일부터 본격화된다.

이철조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장은 3일 "조수간만의 차가 줄어드는 소조기가 시작되는 5일부터 잠수사를 투입해 본격적으로 수색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2일 밤부터 해저수색을 시작했지만, 강한 조류로 인해 잠수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잠수사가 조류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조류가 빠르면 잠수사들의 체력 소모도 클 수밖에 없다.

해수부는 소조기 때 빠른 수색을 위해 중조기인 4일까지 해저수색에 관련한 지

장물을 최대한 수거할 방침이다.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되면 잠수사들이 세월호 침몰 해저에 투입돼 유실방지망 안쪽 3만2000㎡를 확인하게 된다.

해수부는 세월호를 인양하기 전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침몰 지점에 가로 200m, 세로 160m, 높이 3m 유실방지 사각펜스를 설치했다. 정밀한 수색을 위해 이 구역은 다시 가로 40m, 세로 20m 구역 40개로 나눴다.

HD카메라(수중촬영이 가능한 카메라)를 장착한 잠수사 2명이 1m 간격으로 이 구역을 수색한다. 잠수 수색이 끝나면 수중음파탐지기 '소나'로 (SONAR)로 2차 수색에 나선다. 변경 20m까지 수색이 가

능한 소나를 이용해 잠수 수색에서 찾지 못한 유해나 유실물을 한 번 더 점검하는 차원이다.

일부는 해저 수색 범위를 넓혀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세월호가 3년 전에 침몰하면서 조류에 밀려와 원래 있던 자리가 아닌 현 위치(인양지점)에 가라앉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수부는 해저수색 범위를 넓히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현재 설치된 유류 방지 펜스를 집중적으로 수색할 방침이다.

이 단장은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말도 있지만 현재 조류를 감안했을 때 실효성을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 "유실방지망 사각 펜스는 유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목포=김현영기자 young@

세월호 외압 의혹 우병우 6일째 소환 특수본, 당시 수사검사 조사

김철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14년 세월호 수사 당시 실무 책임자였던 윤대진(53·25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를 3일 오후 3시부터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윤 차장에게 당시 수사 상황과 우 전 수석의 지시 및 요구 등 전반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2014년 5월 광주지검 형사2부장을 맡았던 윤 차장검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구조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수사를 했다.

우 전 수석은 그해 6월 5일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수사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압수수색에서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는 제외하라'는 취지로 말해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우 전 수석은 작년 12월 22일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수사팀 간부와 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관련 의혹을 확인하고자 지난 달 윤 차장검사로부터 관련 진술서를 받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은 참사 당일 승객 구조에 실패한 김경일 전 해경 123정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광주지검 담당 검사에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이번 주 중후반에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환 일자리는 6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연합뉴스

"왜 경적 울려" 핫김 폭행

○... "잘 가고 있는데 왜 경적을 울리느냐"며 상대방 운전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40대 경차사범.

○...3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화물 트럭을 운전하던 문모(46)씨는 지난 2일 오후 3시5분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의 한 공원 앞 도로에서 운행하던 차를 멈추고 내린 후 뒤따라 오던 운전자에게 "왜 경적을 울려"라며 주먹을 휘두른 혐의.

○...경찰은 "문씨가 자신의 차량 뒤쪽 차로를 달리던 박씨가 자신을 향해 경적을 두 차례 울리자 화가 나 이같은 일을 벌인 것 같다"며 "문씨는 도로에서 차를 멈추고 내린 후, 뒤에서 차에서 내리는 박씨의 턱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했다"고 설명. /전문기자 e16621@kwangju.co.kr

시민들이 하늘로 띄우는 세월호 편지

목포신항 찾은 추모객들 노란엽서에 사연 적어

3년 만에 수면위로 올라온 세월호를 지켜 본 시민들은 참사로 희생된 이들과 희생자 가족을 위해 하늘로 편지를 띄웠다.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은 '0416엽서보내기 운동'은 4·16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가 계획했다.

세월호를 추모하기 위해 목포신항을 찾은 추모객들이 쓴 편지는 특별했다. 이들은 지난 1일부터 노란엽서에 세월호참사 피해자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과 참사

이후 '자신이 바라는 대한민국'을 직접 손으로 써 넣었다.

두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익명의 글쓴이는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고 이렇게 인양되어 있는 세월호를 보니 또다시 눈물이 흐른다"며 "자식같은 아이들이 편히 쉬기를 기도한다"고 적었다.

다른 시민은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없기를 간곡히 바란다"며 "꽃같이 이쁜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 이런 모진 일을 당했는지 안타깝다"고 했다. /목포=김현영기자 young@

지난 1일 '세월호잊지않기 목포지역공동실천회의'는 목포신항에서 봉사행사를 개최하면서 전달받은 1만여장의 엽서를 목포신항 곳곳에 놓인 테이블에 비치해 놓았다. 시민들이 엽서에 '약속과 바람'을 적으면 한 곳에 모아 경기도 안산에 있는 세월호참사 합동분향소의 노란우체통에 부쳐진다. 이렇게 부쳐진 엽서는 중요 내용이 추려져 대선 후보자들에게 전달된다.

목포신항을 찾은 어린이들도 엽서쓰기에 동참했다. 무안에서 온 김준성군은 엽서에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 형, 누나들은 좋은 곳에 갔을거예요"라고 쓰며 "엽서가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목포=김현영기자 young@



지난 2일 목포시 목포신항 앞에서 추모객들이 '0416엽서보내기' 행사에 참여해 세월호 피해자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노란엽서에 적고 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신안, 비금도 임야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비금도내에 있는 섬 (팻섬)
- 향우 개발가치 100억
- 분할 / 지분매매 가능
- 매매 - 7억 (평당5만원)
- 주인직매

H.010-3605-5000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상수도 전기 통신설비 부지입구까지 인입됨
- 전원주택 허가 필
- 기타 모든업종 개발가능
- 나주호 휴양림 / 둘레길 진행중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11억 3800만원 (조정가능)
- 주인직매

H.010-3605-5000

광양, ㅉ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홈플러스 남동쪽에 위치)
- 6층 중 4층 전체, 2012년 신축
- 분양평수 210평, 실평 147평
- 점포 및 상가 밀집지역
- 중동 락희호텔 근처
- 모든업종 오픈 가능
- 감정/시세 - 13억
- 급매 - 8억 8천만원 (일시불 조정가)
- 주인직매

H.010-3605-5000

나주, 남평읍 토지

-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532-32 외 6필지 (532-1,2,11,31,33,47번지)
- 전남 노인요양원 바로 옆
- 토지 6256평, 계획관리지역
- 남평 10분, 강변도시에서 5분거리
- 현재 양어장 운영중
- 인근 전원주택 단지
- 평당 60 ~ 100 만원 분양중
- 모든업종 개발 가능
- 매매 - 25억 (평당 40만원)
- 장기투자 최고물건
- 주인직매

H.010-3605-5000